

독서 대중과 ‘시민다움의 정치’ 형성의 한 계기가 된 릴케 현상

김익균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문연구원, 현대문학 전공
kig75@hanmail.net

- I. 머리말
- II. ‘문학(시)과 정치’라는 화두와 시민다움의 정치
- III. 독서 대중의 문학적 글쓰기와 릴케 현상
- IV. 맺음말: “뇌옥 속에서의 질주”를 “대중들”의 양가성으로 사유하기

I. 머리말

이 글은 일제강점기 말기부터 시작되어 대한민국 건설기에 본격화된 ‘릴케 현상’을 독서 대중의 형성 과정과 연루되어 있는 시민다움(civilité)의 계기로 읽기 위한 시론(試論)이다. 릴케 현상은 일제강점기 말기 시민권의 정치 공간이 폐색되어가는 정세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던 독서 대중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으며 ‘대한민국 만들기’에 구성적으로 기입되었다.

이 글의 II장에서는 해방 이후 독서 대중이 기입된 한국 문학장에서 논의되어온 ‘문학과 정치’라는 화두를 개조하기 위해 ‘시민다움의 정치’ 개념을 도입하였다. III장 또한 시민권의 정치 혹은 아래로부터의 시민다움의 ‘저항의 다수자로-되기’를 대체보충(supplément)하는 ‘저항의 소수자로-되기’를 1960년대 여고생 양인자의 텍스트에서 도출하였다. 이에 덧붙여 IV장에서는 시민권의 정치의 공간이 폐색될 때 나타나는 상상력의 한 양태로서 임화의 신세대론을 지금, 여기의 맥락으로 유비하여 정세에 따라 시민권의 정치를 대체보충하는 ‘시민다움’의 가능성을 곱씹어보았다.

릴케 현상은 한국 사회 독서 대중의 문학적 글쓰기가 가시화되는 과정을 상연하고 있었다. 근대의 극단적 폭력과 극단적 폭력의 한 예시인 내적 배제는 ‘대중들의/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대중들의 문학적 글쓰기와 연루된 릴케 현상은 자신들이 처한 내적 배제로부터 벗어날 역량을 길러내는 시민다움의 정치의 장소(topos)를 건립하는 사건이었다. 선취해서 말하자면 릴케 현상은 엘리트 중심으로 형성된 식민지 조선의 문학장과 변별되는 한국 문학장의 형성 과정을 상연하고 있었다. 내적 배제에 처해 있던 독서 대중은 학교 교육으로 대변되는 ‘위로부터의 시민다움’을 대체 보충하는 ‘아래로부터의 시민다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릴케처럼 읽기/쓰기’를 상연하였던 것이다. 이 글의 맺음말은 한국 문학장에 기입된 시민다움의 계기를 시민권의 정치가 폐색되는 과정에서 요청되었던 대항폭력의 상상력과 마주보게 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시와 정치라는 문제를 검토해온 지금, 여기의 지평을 시민다움의 정치 문제로 재서술할 가능성을 타진하는 미미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문학(시)과 정치’라는 화두와 시민다움의 정치

한국 사회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 수용은 독서 대중과 접촉하면서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해방과 53년 체제의 공고화 과정에서 문맹이 해소되는 시점에 본격화된 ‘릴케 현상은 소수 엘리트에 의해 문학적 글쓰기가 독점되고 있던 식민지 조선의 문학장이 근본적으로 재구성된 사건이었다. 초기 릴케 현상은 일제강점기 말기의 독서 대중¹⁾과 독서 대중 형성 과정의 일부²⁾인-‘30년대 신세대’로부터 해방 이후 등단 세대까지를 아우르는-‘새로운 세대’ 문인이 가시화되는 현상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독서 대중의 국민화가 확립되는 시기와 릴케 현상의 확산은 연동되어 나타났다.

“1920-30년대의 책읽기와 문학 독자의 존재방식”(30쪽)을 분석하는 『근대의 책읽기』에서 “다른 연대보다 이때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1920년대를 거치면서 근대적인 의미의 책 읽기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기의 글읽기가 소수 엘리트의 문해력에 기반해 있었다는 점이다. 기능적 독서와 ‘취미 판단’으로서의 책읽기가 대중 독자와 고급 독자의 실질적인 구분선(171-202쪽)일 수 있기 위해서는 다수의 문맹자를 배제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독서 대중의 국민화가 이루어지려면 해방 이후 53년 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국민보통교육의 시행과 함께 다시 한번 급격한 취학을 상승이 있어야 했다. 해방 이후 53년 체제의 국민 만들기 일환으로 이루어진 문맹퇴치운동(1953-1957)을 통해 문맹률은 1945년의 77.8%에

1) 일제강점기 말기의 독서문화를 개괄적으로 검토한 연구로 다음을 참조. 천정환, 「일제 말기의 독서문화와 근대적 대중독자의 재구성」, 『학문장과 동아시아』(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참조.

2) 에티엔 발리바르는 관계체성(individualité) 개념을 통해서 기계론, 유기체론과 맞서는 ‘관계의 우월성 내지는 원초성’을 표현한다. 이 글에서는 1930년대 중반에 출현한 ‘신세대’ 문인을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3·1운동 이후 급격히 높아진 취학률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던 독서 대중의 ‘개체화 과정 전체’의 일부로 파악한다(에티엔 발리바르 저, 진태원 역, 「스피노자에서 개체성과 관계체성」, 『스피노자와 정치』, 이제이북스, 2005 참조). 한편 김춘수는 1930년대 말의 문장파와 해방 이후 등단 세대가 사실상 같은 세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해방 이후 등단 세대들은 전시체제기에 정식으로 등단할 기회가 유예된 세대로 보는 것이다. “청록파”를 대표로 하는 《문장》 추천 시인들과 해방과 함께 나온 시인들은 연령적으로 같은 세대에 속한다. 다만 후자는 일제 말 몇 년 동안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뿐이다”(김춘수, 『김춘수시론전집 I』, 현대문학, 2004, 28-29쪽).

서 1960년의 27.9%(로 급감한다.³⁾ 이 글이 1920년대의 책읽기가 “지금까지 계승된 ‘산 과거’”(30쪽)라는 판단에 유보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⁴⁾

‘문제’는 기원이 아니라 지금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긴요한 것은 1회적 ‘생산’이 아니라 그것을 반복 가능하게 하는 재생산 구조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취미 판단’으로서의 책읽기는 미적 자율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그 기원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은 해방 이후 53년 체제하의 한국 문학장이 어떻게 미적 자율성이라는 환상을 재생산하고 있는지 해명하지 못한다. 그러한 질문은 53년 체제하의 문학장이 미적 자율성이라는 환상을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과’가 ‘원인’의 자리로 옮겨진 ‘목적론적 전도’를 수반한다. 미적 자율성이 문학적 글쓰기와 읽기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에서 ‘기능적 독서’를 수행하는 독서 대중이 먼저 형성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취미 판단’으로서의 책읽기를 수행하는 ‘독서 대중’이 어딘가에는 존재할 것이라는 신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학교교육에 의해 형성된 독서 대중이 문학적 글쓰기의 주체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징적 사건인 ‘릴케 현상’으로부터 에티엔 발리바르(Etienne Balibar)의 시민다움⁵⁾의 계기를 도출할 것이다. 문학적 글쓰기에 시민다움 개념을 도입하는 이번 글의 문제의식은 ‘문학(시)과 정치의 관계’라는 화두를 경유한다. 근래에 제기되었던 이 화두는 ‘미적 자율성과 계몽의 관계’⁶⁾에 대한 선행연구를 전도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3) 이두영, 『현대한국출판사』(문예출판사, 2015), 238쪽 참조. 식민지기 취학률에 관해서는 김혜련, 『식민지기 중등학교 국어과 교육 연구: 제2차 조선교육령기(1922-1938)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45-46쪽 참조. 3·1운동 이후 취학을 상층은 일본의 식민지 교육 정책이 교육의 보급을 억제하려던 데서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 근대적 학력주의 원리가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하도록 방향을 수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고마고메 다케시 저, 오성철·이명실·권경희 역, 『식민지 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조선·대만·만주·중국 점령지에서의 식민지 교육』(역사비평사, 2008), 243-275쪽.

4)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푸른역사, 2003), 여러 곳 참조.

5) ‘시민다움’은 civilité의 번역어이다. 현재 ‘시민인론’, ‘시민다움’, ‘시민공존’, ‘시빌리테’ 등의 번역어가 경합 중이다. 발리바르가 원래 일상어를 살려서 개념화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번역어로 ‘시민다움’을 채택했다.

6) 계몽적 주체와 대별되는 예술적 주체가 한국 문학에서 등장하는 지점을 포착하는 연구들로 다음을 참조. 오문석, 「1920년대 초반 ‘동인지’에 나타난 예술이론 연구」, 『상허학보』(상허학회, 2000, 8.); 김춘식, 『미적 근대성과 동인지 문학』(소명출판, 2003); 김형숙, 『문학이란 무엇이었는가』(소명출판, 2005).

점에서 좀 더 강조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는 전문적인 문학 영역과 그것의 내적 원리를 이념화한 미적 자율성의 문학관⁷⁾의 토대로 기능하는 계몽의 식⁸⁾을 세밀하게 검토한 바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1910년대 신문화운동기에 구축된 ‘문화의 장’이 한일병합 이후 폐색되는 과정에서 분화되어 나온 젊은 세대들은 “관찰된 사회 현실과 공공사회의 이상 사이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유예공간⁹⁾”을 1920년대 문학장으로 구성한다. “1920년대 동인지 문단에서 전통, 자연, 민요의 문제는 서정시 확립의 중요한 토대이자 변수로 인식”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1920년대 문학장이 ‘문화의 장’에 해당되는 종교계·사상계·교육계 등에서 강조되는 ‘민족적인 것’과 ‘문학장’에 존재하는 ‘민족적인 것’이 매개되는 토포스(topos)이기 때문이다.¹⁰⁾ 더 나아가 문학장의 데카당스의 징후는 여전히 “구시대적 계몽의 차원에서 탐색”¹¹⁾된다. 특히 조영복은 동인지 문학장의 형성 과정을 이광수의 계몽주의적 인식이 동인지 시대에 “다른 계몽의 언어들에 자리를 내주게 된 것으로 파악한다.”¹²⁾

위에서 요약적으로 일별했듯이, 계몽 담론이 1920년대 미적 자율성의 가능성의 조건이었다고 보는 ‘미적 자율성과 계몽의 관계’ 규정은 그동안 푸코(Michel Foucault)의 규율권력(후기 푸코에서는 생명관리권력과 통치성으로 이어지는) 개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문학과 정치의 관계’라는 근래의 화두는(복고적인 문제제기로 치부되기 쉽지만) 미적 자율성을 규율권력 바깥에 상정할 수 있는지

7) 박현수, 「1920년대 초기 문학의 재인식: 기존 논의 검토」, 『상허학보』(상허학회, 2000. 8.); 차혜영, 「1920년대 동인지 문학 운동과 미 이데올로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9.).

8) “‘퇴폐성’과 ‘데카당스’는 내면 표출의 한 의장이며 또 다른 근대예술을 향한 계몽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조영복, 『1920년대 초기 시의 이념과 미학』, 소명출판, 2004, 97쪽). 당시 작가들이 “외래적인 계몽의 형식으로만 문학을 사유”(211쪽)했다는 주장은 다음을 참조. 박숙자, 「명작의 조건: 번역, 출판, 전집」, 『속물교양의 탄생』(푸른역사, 2012).

9)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푸른역사, 2008), 215쪽.

10) 김춘식, 앞의 책(2003), 50쪽.

11) 조영복, 「동인지 시대의 담론과 ‘내면예술’의 계단」, 『1920년대 초기 시의 이념과 미학』(소명출판, 2004), 98쪽.

12) 위의 논문, 133쪽. 감성주의를 18세기 독일 계몽주의 안의 사상적 흐름으로 보는 논의에 대해서는 김수용, 「Ⅲ. 계몽의 계몽: 계몽위기의 극복 시도」, 『독일계몽주의』(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참조.

새롭게 묻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는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의 ‘정치와 치안’이라는 개념쌍이 준거를 마련해주었다.¹³⁾ 문제는 이러한 문제제기로부터 ‘미적 자율성이 규율권력에 예측되는 편향’의 반대편에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문학정치를 치안으로 치부하는 ‘또 다른 편향’이 배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랑시에르의 정치 개념이 치안을 배제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어떤 문학이 정치고 어떤 문학이 치안인지와 관련한 상호배제적 욕망이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에 따라 랑시에르의 ‘치안을 배제하는 정치’ 자체에 대한 비판¹⁴⁾ 역시 따라 나오고 있다.

랑시에르의 치안 개념은 푸코가 법이나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은밀한 하부구조로 간주한 규율권력과 부합하는데, 다만 랑시에르는 푸코에게 정치가 부재한다고 비판하면서 치안에 대해 적대적인 활동의 자리에 정치를 놓음에 따라 푸코의 규율권력과 개념적으로 갈라서게 되었다. 푸코는 치안과 정치를 ‘전혀 상이한 논리가 지배하는 두 가지 활동’으로 보지 않았다. 후기 푸코의 문제의식은 ‘확장된 의미의 통치’¹⁵⁾ 개념을 통해서 “바깥의 정치와 제도 정치 사이의 (목적론 없는) 변증법적 관계에

13) 한국 근대문학의 개념 구성 변경 작업에 문학정치를 주제로 랑시에르의 이론을 도입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황종연, 「플로베르, 염상섭, 문학 정치: 한국 근대문학에 대한 랑시에르적 사유의 시도」, 『한국현대문학연구』(2016).

14) 랑시에르의 정치 개념에 대해 비판하는 백낙청의 입장은 다음을 참조. “치안—물론 이는 랑시에르가 말하는 치안으로 이른바 제도권 정치만이 아닌 온갖 정치행위를 뜻한다—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정치’에의 관심이란 무관심과 무책임에 대한 일종의 알리바이로 기능할 우려가 없지 않다. [...] 근대국가의 나라살림을 남들보다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지식인이기에 ‘치안’에 대한 개입을 덜 중시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3세계라든가 분단체제의 변혁과정에 놓인 한국의 경우 치안의 영역이 극히 불안정하며 ‘감각적인 것의 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백낙청, 「현대사와 근대성, 그리고 대중의 삶」, 『창작과비평』, 2009, 겨울호). 백낙청은 랑시에르의 *littérarité*(문학성) 개념에 대해서 “재현적 예술체제에서 예술과 예술 아닌 것 사이—문학에서라면 ‘순문예’와 비문학 사이—의 차별과 위계질서를 허물고 문자로 된 온갖 생산물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민주적 체제’를 가리키는 것이다”(각주 14)라고 설명하며 “근대의 도래와 더불어 예술에서 사실적 재현이 낡다른 의미를 갖게 된 점에 대한 인식은 미흡해 보인다”고 비판한다. 이 외에 랑시에르의 정치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는 김성호, 「문학의 정치와 정치적 보편성」, 『크리티카』 4호(2010); 백낙청, 「우리시대 한국문학의 활력과 빈곤」, 『창작과비평』(2010, 겨울호) 참조.

15) 푸코는 “여기서 나는 ‘통치(gouvernement)’의 의미를 확장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국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통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컨대 대중 매체처럼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간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조직하는 사람들의 통치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미셸 푸코 저, 이승철 역, 『푸코의 맑스—뫼치오 프롬바도리와의 대담』, 갈무리, 2004, 127쪽)라고 말한다.

주목”¹⁶⁾하는 발리바르의 문제의식과 만난다. 발리바르는 정치에 대한 유일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한편 다수이면서 상이한 모든 정치적 수준에서의 저항을 역설한다.¹⁷⁾ “정치적 행위 자체는 개인들과 그들이 일부를 이루는 공동체 사이의 상호관계를 설립하는 근본적인 양식, 즉 개인들을 집단화하고 역사적 집합체의 성원들을 개인화하는(물질적이지아 상징적인) 양식”¹⁸⁾인 것이다. 이러한 양식의 고유한 불안정성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발리바르는 “예술적 활동에 도움을 요청”¹⁹⁾한다. 정치는 “인간의 정주(亭主) 및 갈등적 상황의 예술, 공동의 삶의 예술/기술(art)로 주기적으로 다시 존재하거나 다시 생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예술은 정치의 장 속에 편재해야”²⁰⁾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술이 경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라고 보는 발리바르는 “경계에 고유한 “시빌리티”(시민다움)를 형성하는, 의미와 무의미, 폭력과 생산성을 시험하고 정련하는 상이한 방식들에 대한 신중한 탐구라고 예술을 정의”한다.²¹⁾

시민다움의 정치는 “행위자들 사이의 인정과 소통, 갈등의 조절을 가로막는 극단적 폭력의 형태들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치적 활동(그 실행의 ‘시간’과 ‘공간’)의 가능성의 조건들 자체를 생산하는 것”²²⁾을 목표로 삼는다. 이때 극단적 폭력은 구조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갖는 구조적 폭력을 초과하는 폭력, 즉 정치의 불가능성을 조건 짓고 있는 조건들이다. 발리바르의 정치철학의 특색은 폭력 문제에 관한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발리바르는 폭력 문제, 반폭력의 정치²³⁾ 문제를 자신의 이론적 작업의

16) 진태원, 「정치적 주체화란 무엇인가? 푸코 랑시에르 발리바르」, 『진보평론』 63호 (2015), 205-207쪽, 214-215쪽 참조.

17) 에티엔 발리바르 저, 진태원 역, 『정치의 재발명: 시민권과 시민다움』, 『정치체에 대한 권리』(후마니타스, 2011), 162-173쪽. 발리바르는 “정치 개념 자체를 복수화시킨다./ 인간학적 차이들의 개념화를 통하여 개인 일반이 인류의 표본으로 표상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원리적으로 배제하고 인간의 동일성을 개인으로서의 동일성으로 환원할 가능성을 배제한 후에 발리바르는 복수의 동일성들 사이의 관계, 동일화의 폭력이라는 차원을 정치 개념에 도입한다”(서관모, 「알튀세르에게서 발리바르에게로: 이데올로기의 문제 설정과 정치의 개조」, 진태원 엮음, 『알튀세르 효과』, 그린비, 2011, 655쪽).

18) 에티엔 발리바르 저, 진태원 역, 『폭력과 시민다움: 반폭력의 정치를 위하여』(난장, 2012), 101쪽.

19) 에티엔 발리바르 저, 진태원 역, 『우리 유럽의 시민들?』(후마니타스, 2010), 74-75쪽.

20) 에티엔 발리바르 저, 진태원 역, 『정치체에 대한 권리』(후마니타스, 2011), 222쪽.

21) 에티엔 발리바르 저, 진태원 역, 앞의 책(2010), 84쪽.

22) 위의 책, 229쪽.

중심에 놓는다. 그것은 폭력 문제를 사고하지 않고서는 정치에 관한 논의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극단적 폭력에 의해 정치적 활동은 물론이고 인간적 영역의 경계 자체가 와해될 위험에 처할 때 해방운동과 변혁운동은 그 가능성의 조건을 위협받는다고 할 수 있다.²⁴⁾

“폭력의 핵심에 시민 윤리성이라는 반폭력을 도입하는” 것은 “총체적 동일화’와 ‘부동(浮動)하는 동일화’의 양극 사이에서 동일화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서의 정치이다.”²⁵⁾ 이러한 시민다움의 정치 개념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근대적 이해가 기입되어 있다.²⁶⁾ 마르크스(Karl Marx)처럼 하나의 유일하고 일의적인 동일성으로 환원하려 할 때도, 들뢰즈(Gilles Deleuze)식의 탈주에서처럼 어떤 정체성도 갖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개인성을 소거하고 부유할 때도 극단적 폭력은 증가하게 된다. 극단적 폭력을 감소시키려는 반폭력의 정치, 즉 시민다움의 정치는 다양한 정체성들 속에서 이동하면서 차이의 권리, 평등의 권리, 연대와 공동체의 권리를 함께 요구할 수 있도록 매개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시민다움을 길러내고 경험하도록 매개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근본적인 장소로는 학교와 예술이 상정된다. 특히 시민다움의 정치의 장소로서 예술을 사유하는 데는 브레히트(Bertolt Brecht)의 ‘낯설게 하기’ 개념에 대한 알튀세르(Louis Althusser)의 재해석이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관객을 연극 자체에 의해서 연극으로부터 어떤 거리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은 관객을 [연극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관객을 재판관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아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관객을 붙잡아 이 명확한 거리 안에, 이 ‘낯설게 만들기’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이다. 곧 관객을, 그야말로 능동적이고 살아 있는 비판인 그 거리 자체로 만들기 위해서이다.”²⁷⁾ 예술체험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갖는 ‘거리

23) 폭력에 대처하는 일반적 방식은 비폭력과 대항폭력으로 양분된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대응이 폭력이 파괴한 정치의 주체적 가능성을 생산하는 데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항폭력과 비폭력이라는 이항대립적 틀을 변증법적으로 넘어서려는 ‘반폭력’의 사유는 발리바르에게 시민다움의 정치라는 모델로 나타난다. 시민다움의 정치는 폭력에 의해 봉쇄된 정치의 주체적 가능성을 복원하는 포괄적인 실천을 지향한다. 에티엔 발리바르 저, 윤소영 역, 『마르크스의 철학, 마르크스의 정치』(문화과학사, 1995), 182-186쪽.

24) 진태원, 「옮긴이 해제」, 『우리, 유럽의 시민들?』(후마니타스, 2010), 474쪽.

25) 에티엔 발리바르 저, 서관모·최원 역, 『대중들의 공포』(도서출판b, 2007), 64쪽.

26) 서관모, 「시민윤리성의 정치에 대하여」, 『사회과학연구』 30권 1호(2013), 93쪽.

두기'는 발리바르의 시민다움 개념을 구현하는 데 중요하다. 시민권의 보편적인 추구로부터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할 뿐더러 시민다움 안에 있는 여러 계기들 중 어느 하나에 고착되지 않기 위해서도 '거리 두기'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발리바르가 시민권의 정치의 대체 보충으로 시민다움의 정치를 제기하게 된 것²⁸⁾은, 시민권의 정치 혹은 대항폭력이 고유한 아포리아(aporia)를 갖는다는 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항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의 대의에 동의할 때도 정서적인 차원에서는 대항폭력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떨치기 어렵다. 한국 현대(문학)사의 민주화 과정 전반에서 이러한 아포리아는 흔하게 노정되고 있다. 동아시아적인 공통경험의 사소한 예로서 비교적 근래에 재점화되었던 〈적기가〉라는 노래에 대한 '논란'을 떠올려보자. 이 노래는 시민권의 정치 혹은 대항폭력에 나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세계 전역에서 불렸으며 특히 일본에서 개작된 판본은 한국어로 번안되어 불렸다.²⁹⁾ 도미야마 이치로(富山一郎)는 청소년 시절 "높이 들어라 적기를/그 그림자에 죽음을 맹세하니/ 비겁한 자들이여, 갈 테면 가라/우리는 적기를 지키리라/갈라면 가라/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는 노래를 듣고 "깃발 아래에 죽음을 맹세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접쟁이를 비겁자로 지탄하는 이 노래를 접하고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죽음과 상처의 아픔을 애써 감추고, 목숨을 건 결기를 예찬하는 일은

27) 루이 알튀세르 저, 이종영 역, 「피콜로', 베르톨라치 브레히트(유물론적 연극에 대한 노트)」, 『맑스를 위하여』(백의, 1997), 177쪽. 알튀세르의 입론을 진전시킨 논의로 다음을 참조. 피에르 마슈레 저, 이성훈 역, 「이데올로기 형식으로서의 문학」, 『유물론, 반영론, 리얼리즘』(백의, 1995).

28) 발리바르의 시민다움의 정치는 기왕의 시민권의 정치의 아포리아를 이충으로 지양하고 있다. 시민권의 정치는 정치의 자율성 개념과 정치의 타율성 개념에 따라 크게 둘로 유형화된다. 발리바르의 시민다움의 정치는 루소로 대표되는 정치의 자율성 개념이 지닌 아포리아인 '계급적 차이들'을 지양하며 출현한 마르크스와 푸코로 대표되는 정치의 타율성 개념이 지닌 아포리아인 동일성의 폭력을 지양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왕의 정치의 자율성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민다움의 정치'는 네그리의 '다중의 정치'와도 경합한다. "발리바르는 정치의 자율성 개념과 정치의 타율성 개념("조건하에서의 정치" 개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정치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딜레마를 넘어서도록 정치 개념을 개조함으로써 "해방"과 또한 "변혁"의 아포리아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서관모, 앞의 논문(2011), 656-659쪽 참조.

29) 노래의 전래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민경찬, 「독일민요 '소나무'가 영국 일본 거쳐 한반도로 유입 변형」, 『미디어오늘』(2004. 3. 1.). 그 유래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적기가〉는 전쟁 세대의 집단 기억을 이루고 있었고 근래에는 영화 〈실미도〉와 '통진당 사건' 등을 통해서 여러 차원에서 담론화되었다.

혁명이나 해방의 시기에는 혼한 일이다. 혹은 그것은 반(反)혁명이나 파시스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썼다.³⁰⁾

시민권의 정치 혹은 대항폭력이 폭력에 대한 ‘대중들의 공포’를 ‘대중들에 대한 공포’로 바꿔놓는 이 아포리아에 변증법적으로, 달리 말해서 예술(art)적으로 접근하는 시민다움의 정치 개념은 우리의 현대사에서 ‘비폭력’이나 ‘대항폭력’이라는 양자택일 문제³¹⁾를 재고하게 해준다. 이는 ‘미적 자율성이나 계몽이냐’라는 문제를 ‘정치와 치안’으로 조야하게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문학사적 지평을 펼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독서 대중의 문학적 글쓰기와 릴케 현상

1962년은 출판 종수만 따지면 예년의 두 배인 4,000종을 출간한 해이다.³²⁾ 이는 국민교육의 확립으로 취학률이 급증하고 독서 대중이 형성되는 시기에 일어난 현상이었다. 1963년에 간행된 박정희의 국정철학이 담긴 『국가와 혁명과 나』에는 독일의 라인강변의 기적을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책의 기초 속에서 하이네(Heinrich Heine)의 시 〈1839〉(“경망한/국민은/나의./무거운/짐!”)가 게재되는 한편 자작시도 한 편(“땀을 흘려라/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노래로 듣고/.../이등 객차에/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나는, 고운/네/ 손이 밍더라.”) 실린다.³³⁾ 선비의 ‘우국시’ 전통과 한국 엘리트의 근대시 이해가 만난 기묘한 장소에서 당시 독서 대중의 모습이 상연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혁명과 나』가 출간된 그해에 김윤식 역시 이런 진술을 남겨놓았다.

30) 도미야마 이치로 저, 송석원 외 역, 「서문을 대신하여: 겹쟁이들」, 『폭력의 예감』(그린비, 2009) 참조.

31)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천년의 상상, 2012), 20쪽 참조.

32) 「양적으론 출판계 최고의 해」, 《경향신문》, 1962년 12월 22일자. 이두영은 1958년부터 1965년에 이르는 기간이 “출판산업의 기반 구축기”라고 평가하며, “1천종대 전반에 머물러 있던 연간 출판량은 60년대 들어와서 3천종 내외를 넘나”들게 된다고 한다. 이두영, 『현대한국출판사』(문예출판사, 2015), 250-251쪽.

33)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向文社, 1963), 207쪽, 270-271쪽.

몇 해 전부터 미증유의 세계문학 전집 붐이 전공자의 책임 번역으로 출간되고 있다. 그러나 이 한계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즉 이 현상은 극히 최근의 현상이며, 따라서 증견 이상의 현역작가에겐 별로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³⁴⁾

인용에서 보듯이 당시 “미증유의 세계문학 전집 붐”은 독서 대중의 출현을 바라보는 엘리트들의 ‘의아함’과 그러한 현상이 “전공자의 책임 번역”을 가능하게 했다는 인식을 동시에 낳고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교육받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주로 일어(와 영어)를 통해 세계문학을 읽던 독서 문화가 전복되는 장면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절합을 노정한다. 해방 이후 특히 53년 체제하에서 문해력을 갖춘 인구의 압력은 세계문학 전집의 한글 번역 출간을 강제하였다.³⁵⁾ 세계명작 번역물을 읽는 “이등객차”의 “소녀”는 ‘취미 판단’으로서의 책임기를 시작한 독서 대중의 상징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53년 체제의 ‘국민’으로 호명된 독서 대중이 가시화되는 장소로 베스트셀러 집계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최초의 베스트셀러 집계는 1962년 7월 한국사회통계센터에서 소설부, 비소설부, 아동도서부, 정기간행물부, 전서부(전집부)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³⁶⁾ 당시 베스트셀러 집계에 의해서 선명해진 것은 국내 창작물에 비해 번역물이 많이 팔린다는 점이었다. 다음 기사에서 보듯이 세계명작 번역물은 당시 대중적인 선물 목록으로 떠오르게 된다.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베스트셀러 몇 권을 골라보면 금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작품인 아그논의 약혼녀 동서문화원 간으로 값은 3백 20원 아담한 장정으로된 릴케의 시집 그리움 위문출판사간으로 1백50원 김요섭역으로된 헬만 헤세의 데미안 동민문화사간으로 값은 3백20원³⁷⁾

34) 김윤식, 「한국에 있어서의 릴케: 비교문학적 시도」, 『현대문학』(1963. 1.), 65쪽.
35) 제1차부터 제4차 교육과정까지 국정교과서 체제에서 국어교과서는 외국문학작품에 대한 이해를 문학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다. 릴케와 관련해서 보면 릴케의 〈가을날〉(송영택 역)은 제2-3차 교육과정의 인문계 『고등국어』 3, 동일 교육과정의 실업계 『고등국어』 3에 수록된다. 한편 릴케의 시문을 전유한 박용철의 「시적 변용에 대하여」가 『중등국어』(5)와 『고등국어』 2에 수록된다.
36) 1960-1970년대 베스트셀러 제도에 대한 근래의 연구로 다음을 참조. 이용희, 「1960-70년대 베스트셀러 현상과 대학생의 독서문화: 베스트셀러 제도의 형성과정과 1970년대 초중반의 독서 경향」, 『한국학연구』 41(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5.).
37) 「계절 따라 주고받는 선물 익어가는 축제 무드」, 《매일경제》, 1966년 12월 16일자.

독서 대중이 형성되자마자 이들은 한국어로 생산된 독서물보다 ‘수준 높은 독서물’, 즉 번역물을 욕망하게 되었다. 한국의 엘리트 계층이 대중의 욕망을 단순한 허영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될 때 이는 한국의 문화 생산자가 감당해야 할 도전이 된다. 당시 서점 관계자 “소매를 겸한 u문화사의 r씨는 [...] 명작집이 속속 번역됨으로써 시집의 위치가 약화된 것을 강조”³⁸⁾했는데, r씨의 발언은 국내 창작집 안에서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은 독서물이던 시집이 1960년대에 세계명작집 번역에 밀려 그 위상을 내어주기 시작했다는 진단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진단은 두 가지 차원의 해법을 열어놓는다. 하나는 번역물과 차별화된 ‘우리 것’의 다양성을 통해 독서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문학의 높이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 인터뷰에서 서정주는 독서 대중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시에 “액션”을 넣었다고 말한다.³⁹⁾ 한편 김우중은 베스트셀러 집계를 근거로 주류 문단의 교체를 요구하는데 이보다 한 발 앞서서 김수영은 ‘독자의 불신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⁴⁰⁾ 『절마재신화』에서 나타난 서정주의 양식 실험이나 ‘독자의 불신임’론은 독서 대중의 욕망이 당시 시문학장에 직·간접적으로 기입되는 양태를 보여준 것이다. 세계의 베스트셀러 경향을 소개하는 신문 지면에는 “중견작가 시인작품 등이 독자끌어”라는 중간제목과 인도에서는 타고르(Rabindranath Tagore)의 위상이 높다는 기사문이 곁들여 있어⁴¹⁾ 신문 편집에서부터 한국 시집의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 눈에 띈다.

독서 대중의 세계명작물에 대한 욕망은 문학적 글쓰기에 대한 욕망으로

38) 「망각속의 시집 봄」, 《동아일보》, 1965년 10월 16일자. 한편 시인 장만영 씨는 각박한 사회구조와 함께 중요 독서층인 고등학생이 입시와 교과 과정에 놀려 시와 접할 기회가 없다는 것과 매스컴이 시를 냉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같은 지면)

39) 김주연, 「이야기를 가진 시」, 『나의 같은 나의 작품』(민음사, 1975), 11쪽. 참고로 이 무렵 『서정주시선』의 누적판매량은 1만 부에 도달한다. 그 뒤를 이어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가 8,000부, 『고은시선』이 6,000부, 황동규 『삼남에 내리는 눈』이 5,000부로 각각 집계된다(《매일경제》, 1976년 7월 27일자). ‘김소월 다음가는’ 베스트셀러 시인 조병화의 『사랑이 가기 전』(1955)은 3만여 부,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1959)은 8,000부가 판매되었다(《동아일보》, 1972년 11월 27일자).

40) 김우중, 「과산의 순수 문학-새로운 문학을 위한 문단에 보내는 각서」, 《동아일보》, 1963년 8월 7일자. “우리나라의 문학계는 이러한 철저한 불신임 속에서 다시 백지로 환원됨으로써만 새로운 시대의 작품의 생산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건실한 독자가 없이는 건실한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문학현상의 철칙이기 때문이다.” 김수영, 「독자의 불신임」(1960. 8.), 『김수영전집 2』(민음사, 1981).

41) 《경향신문》, 1963년 1월 26일자.

이어지는데 그 접점에서 릴케 현상이 가시화되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1930년대 중반의 식민지 조선에서 김진섭과 박용철에 의해 소개된다. 박용철 사후에 릴케 번역의 공로는 영문학자인 윤태웅에게 돌아갔다. 1941-1943년에 9편의 릴케 시 번역을 게재한 윤태웅은 해방 공간(책의 해방기)에서 릴케번역시집 『소녀의 노래』(1948)를 출간하였다.⁴²⁾ 이후 문해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새로운 시대의 독서 대중이 형성되자 세계문학전집이 쏟아져 나오는 중에 독문학 전공자에 의한 『릴케시집』(구기성, 교양문화사(세계시인전집 시리즈), 1960)이 출간되기에 이른다.

당시 릴케는 문학적 글쓰기의 모범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계몽목의 대학생 수필 당선 작품에 대한 심사평은 “릴케의 말테의 수기를 한질 읽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렇게 조용한 사색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⁴³⁾ 릴케를 문학적 글쓰기의 준거로 삼는 릴케 현상은 기성 시인과 평론가에게도 만연해 있었다. 1963년에 신동엽은 “달라 원조와의 상관성에서 양성되어진 비교적 술학적인 식자층(시인이 아니라)들”이라는 비아냥을 곁들여 “그분들은 릴케, 엘리엇 등의 조사법의 지존한 잣대로 삼고 있다”고 하여 이런 분위기를 비판한다.⁴⁴⁾ 1966년 12월 《한국일보》의 시월평에서도 “로망을 끌어다 붙이는 것은 우리 문학소년소녀들이 한동안 이런 식으로 릴케를 자꾸 끌어다 넣던 게 생각되어 좋지 않다”는 불편한 목소리가 나온다.⁴⁵⁾

특히 독서 대중에게 중요한 문학적 글쓰기는 서간문이었다. 최초의 릴케 번역은 서간문 「어떤 젊은 문학 지원자에게」(김진섭, 《조선일보》, 1935년 7월 12-13일자)이며, 1939년 5월 2일 《동아일보》의 “읽은 책 읽는 책 읽을 책”란에 김광섭은 ‘읽은 책’으로 릴케의 『서한집』을 들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1970년대에는 릴케의 서간문이 베스트셀러로 집계되는데⁴⁶⁾, 이는 독서 대중이 ‘독서’에 머물지 않고 문학적 글쓰기로 나아가는

42) 안상원, 「독일 시문학의 수용」,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100년 1』(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189쪽. 그 외의 릴케 번역 목록은 안문영, 「한국 독문학계의 릴케 수용」, 차봉희 엮음,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100년 2』(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43) 계몽목, 「추풍유상을 천한다(수필 심사소감)」 전국남녀대학생작품 심사결과발표, 《경향신문》, 1958년 4월 7일자.

44) 신동엽, 「시와 사상성-기교비평에의 충언」, 《동아일보》, 1963년 12월 11일자.

45) 서정주, 『서정주전집』 2권(일지사, 1972), 252쪽. 이때 ‘로망’은 ‘릴케 담론’에 포함되는 어휘군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윤식은 ‘기다림’, ‘고독’, ‘대지’ 등의 용어를 릴케 관련 어휘로 열거한다. 김윤식, 앞의 논문(1963. 1.).

46)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이너 마리아 릴케 저, 홍경호 역, 범우사, 1972)가

과정과 연동하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펜팔대표는 문맹을 탈피하게 된 독서 대중에게 서간문 쓰기를 다음과 같이 권장하였다. “고대의 저명한 철학자들의 편지내용의 하나하나가 곧 그들의 철학이며 사상이고 또한 그들 자신의 인생관의 기록이었고 그 예로 라이네로·마리아릴케의 서간문학을 들 수가 있는것이다.”⁴⁷⁾

릴케 현상은 상아탑 안에 머물던 독문학계에서도 요동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한국독일문학회가 결성(1958)(1970년에 한국독어독문학회로 개칭)되고 학술지 형태의 『독일문학』이 발간(1959)된 이래로 2008년 집계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동안 독일시 연구논문의 약 21%가 릴케 연구로 이뤄진다. 특히 1970년대에는 독일시 연구논문의 약 43%가 릴케 연구로 채워지는 ‘신드롬’이 일어났다. 한국의 릴케 연구로 최초의 학위논문이 나온 것은 1965년(전광진, 「R. M. Rilke에 있어서의 초월의 문제: 존재의 가능성과 현실의 추구, 서울대학교)과 1968년(윤병일, 「R. M. Rilke 연구, 성균관대학교)의 석사학위논문이었고 박사학위논문은 1980년대에 나오기 시작한다. 독일유학파인 강두식, 구기성⁴⁸⁾과 달리 대표적인 국내파 릴케 연구자인 전광진은 1970년대까지 릴케의 후기시 『두이노의 비가』 연구에 집중한다.⁴⁹⁾ 『두이노의 비가』는 릴케 현상의 중핵을 이루는 시집 중 하나이다. 1967년 박정희 정권의 부정선거⁵⁰⁾와 관련한 일화로 언론매체가 『두이노의 비가』를 인용하는 방식을 확인해보자.

번역비소설 분야에서 1972년 11월부터 1973년 1월까지 3개월가량 베스트셀러 상위에 놓여 있다. 『베스트셀러』, 《동아일보》, 1972년 11월 21일자, 12월 5일자, 12월 19일자, 1973년 1월 31일자.

47) 심용남(한국펜팔 대표), 「펜팔활동의 목적과 그의 문화교류」, 《경향신문》, 1960년 6월 20일자.

48) 구기성에 관한 당시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다. “구기성씨. 숙대조교수 독문학= 63년 이래 도독중인 구씨는 지난 6월 30일 서백림대학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은 릴케에 있어서 동물상징연구. 구씨는 한국인으로 두 번째의 독문학박사”(《경향신문》, 1967년 7월 22일자).

49) 전광진의 박사학위논문은 『릴케시의 구조와 상징공간: 「두이노의 비가」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1980)이다. 당시 독문학계의 연구 동향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 정경량, 「한국에서의 독일시 연구」, 『한국독어독문학 50년』(알음, 2008); 고영석, 「한국 독어독문학의 어제와 오늘」, 차봉희 엮음,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100년 1』(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49-50쪽; 안문영, 「한국 독문학계의 릴케 수용」, 차봉희 엮음,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100년 2』(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문현미, 「한국 근대사에서 독일시 접촉과 수용」, 한국문화회 엮음, 『해외문화 접촉과 한국문학』(세종출판사, 2003).

50) 1967년 박정희 정권의 선거부정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서중석, 『대한민국 선거이야기』(역사비평사, 2008), 148쪽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국정감사와 관련한 기사에서 “선거가 진행 중인 도중에 정부가 선거법시행령을 개정한 것과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번복한 것”이 잘못이라고 믿는다는 사광욱 위원장에 대한 심경묘사에는 “당장에라도 책상을 정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을” “개인 사광욱”과 “국가의 이 대사를 끝내 관리해야 할 십자가를 진 공인” 사광욱 위원장의 갈등이 노정되어 있다. 기사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가 부정선거를 진행하는 동안 제도 정치의 바깥으로 나가려는 개인과 제도 정치 내에 ‘예속화’되어 있는 공인은 공서(共棲)하는 것이다.

외부에 있는 일반국민은 중앙선관위의 내막을 잘알까닭이 없다./릴케의 시에 이러한 구절이 있다. “비록 내가 외쳤다 한들 천사의 질서 가운데서 그 누가 나를 들어 주었겠는가.” 그 당시의 사위원장심경도 이러한 절망적인 고독감이었지나 않았겠는가.⁵¹⁾

정치가 “갈등적 상황의 예술”⁵²⁾이라고 할 때 인용한 기사에서는 사광욱의 ‘정치’를 『두이노의 비가』 「제1비가」의 첫 구절을 통해 표현한 셈이다. 「제1비가」의 첫 구절은 “인간이 천사라는 비현실의 존재를 인정하고 천사와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드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인간이 천사와 관련을 맺는 순간 인간은 파멸하고 만다.” “인간쪽에서 천사에게 구애하는 태도”는 “천사가 지닌 높은 우주 질서를 얻기 위한 인간쪽의 노력과 지향”이다. “천사란 하나의 기준이요 척도”다.⁵³⁾ 전광진에 따르면 천사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높은 우주적 질서”의 “척도”이므로 인용한 기사의 맥락에서 천사는 추상화된 ‘일반 국민’ 혹은 ‘민주주의라는 원칙’이 된다. 불안정한 경계 위에서 사는 개인이 이러한 척도를 향해 구애한다면 “파멸”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구애는 “절망적인 고독감”을 받아안음으로서만 가능한 도약인 것이다.

사광욱 위원장(으로 비견되는 정치적 주체)에게 시민권의 정치(혹은 아래로부터의 시민다움의 다수자로-되기)로 나아갈 역량이 있다면 저항은 당연한 선택이다. 하지만 그런 역량이 없다고 해서 독재 정부가 자신을

51) 「황철수설」, 《동아일보》, 1967년 12월 12일자.

52) 에티엔 발리바르 지, 진태원 역, 앞의 책(2011), 223쪽.

53) 전광진, 「『두이노의 비가』에 나타난 천사상」, 『릴케』(문학과지성사, 1981), 55-56쪽 참조.

‘쓸모없는 존재(superfluous being)⁵⁴⁾로 내모는 데 저항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인간=시민’이기 위해서는 시민다움의 정치의 계기를 보존하고 그것을 변증법적으로 구현하는 예술/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것이다. 인용한 신문기사에서 제시한 사광옥 위원장의 “절망적인 고독감”은 “사회 교제의 영역에서” “외로움”이라고 부를 그 무엇인데, 정치 영역에서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규명하듯이 압제 정부에 의한 “테러”의 시작인 “고립”이라고 부를 상태에 해당한다.⁵⁵⁾ 한나 아렌트의 ‘고립’ 개념은 근래 발리바르에 의해 정교화되는 극단적 폭력의 한 예인 ‘내적 배제’로 이어진다. 제도 정치 안에 있는 사광옥 위원장이 보여주는 무기력은 53년 체제하에 있는 대중들에게도 편재해 있었다. 우리는 앞장에서 발리바르에게 정치적 행위는 ‘개인들과 그들의 일부를 이루는 공동체 사이의 상호관계를 설립하는 행위’이며 이 고유한 경계에 놓인 시민다움을 형성하는 신중한 탐구에 예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체화 과정의 결과로서 관계체성을 갖는 ‘개인’ 또는 ‘개체는 자신에게 강요되는 무기력을 신중하게 탐구하며 자신의 저항 안에 예술이 편재하도록 해야 한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한 서구 시인이 1960-1970년대 한국의 사회적 현상에 연루된 것은 거기에 당대인들이 요청하는 시민다움의 정치의 계기가 잠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위로부터의 시민다움에 호명된 독서 대중이 자신이 처한 내적 배제 속에서 ‘릴케처럼 쓰기’를 통해서 아래로부터의 시민다움의 ‘저항의 소수자로-되기’를 수행하는 사례의 하나로, 부산여고 2학년 양인자 학생의 「아버지 그리운 마음으로」라는 텍스트⁵⁶⁾를 검토해보자.

창밖의 등불이 하나씩 꺼져 간다. 야경군의 딱딱이가 밤공기를 뚫고 들리는 걸 보면 분명 자정이 넘은 듯한데 아직 내 별은 나타나지 않았다./생각들이 집착되지 않고 산란하게 떠 다닌다./자정이 넘어 주위의 조그만 별들이 죄 사라진 후에야

54) 한나 아렌트 저, 박미애·이진우 역, 『전체주의의 기원』 2권(한길사, 2006), 252쪽. 번역은 일부 수정.

55) 모든 압제 정부의 제1관심사가 개개인을 “고립”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밝힌 연구로 위의 책 「13장 이데올로기와 테러: 새로운 국가 형태」에서 특히 277-284쪽 참조.

56) 양인자, 「아버지 그리운 마음으로」, 《경향신문》, 1961년 12월 9일자. 양인자는 이후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같은 대중가요의 작사가로 활동하며 1980년대 대중문화의 주역이 된다. 1960년대 독서 대중의 릴케 현상을 1980년대 대중문화의 다양성과 관련 짓는 연구는 고를 달리하여 제시하겠다.

슬그머니 나타나 유난히 반짝이는 내 별. 그 별을 진상의 별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자.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난 후에야 글을 쓴다고 말해보자. 이코율이 성립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니까./문학이란 실로 고독의 소산물 고독했기에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던 심정 릴케의 고독이 지금은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나는 나대로 그 누구의 흉내를 내어 이렇게 낙서를 해본다.

인용한 텍스트는 여고생 양인자가 자신의 글쓰기 경험을 기술한 대목이다. 즉, “그것이 사실이니까” 쓴 것이다. 하지만 양인자는 그것이 “릴케의 고독”을 “흉내” 낸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밝힌다. 양인자의 글쓰기, 즉 “자정이 넘어 주위의 조그만 별들이 죄 사라진 후에야 슬그머니 나타나 유난히 반짝이는 내 별”이 “나타난 후”에 시작되는 글쓰기 혹은 인식하기는 릴케 현상의 대표적인 표상이었다. 당시 박목월은 굳이 “릴케의 시구를 빌면은 깊은 밤별이 찬란한 누리에서 고독한 공간으로 떨어지는 그 지구”(박목월, 「종점(시)」, 《경향신문》, 1962년 3월 18일자)라고 쓰고 있다.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던 심정”이라는 양인자의 표현 역시 “이번에 여러 작품에서 발견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의욕의 상실에 있다. 쓰지 않고는 죽어도 못 배길 때 비로소 붓을 들어야 한다는 릴케의 충고 따위는 아랑곳없는 형편이다”(김우중, 「한심한 피날레-12월의 창작평」, 《경향신문》, 1962년 12월 25일자)라는 김우중의 평문에서 보듯이 릴케 현상의 클리셰이다. 독서 대중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이 릴케가 말한 “진상”과 일치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현상은 여고생뿐만 아니라 시인과 비평가들에게도 편재해 있었다.

아래에 인용한 텍스트의 본론에 해당하는 후반부, 사실이기 때문에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던 릴케 “흉내”로서의 글쓰기를 좀 더 읽어보자.

아이상하다. 왜 우리 아빠 오지 않을까? 이때서야 비로소 누구든지 아빠가 있다는 걸 알았고 처음으로 아빠를 찾게 되었다. 일곱 밤만 참아보자. 속셈으로 아 일곱 밤이 지났으나 아빠 오시지 않았다./“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갔노?”/[...] “인자야.”/“응?”/“저 애들 하고 같이 좀 놀아라”/가만히 방구석에 앉아 있는 날보고 엄마가 하신 말이다./“아빠가 와야 놀지.”/“아빠 안옴안노나?”/“아빠가 인형 시준다고했으니까 아빠가 와야 놀지.”/“인형없으면 어때서”/“재들이 같이 인놀라하는데 뭘.”/“아빠 오면 더 이쁜인형 사온다. 밖에나가서 놀아라 응?”/“안한다”/이력저력 일년이 지나 국민학교 일학년이 되었다. 이때 피난은 애들 덕택에 나는 두가지 말을 쓰기 시작했다. 학교 가서는 부산말, 집에 와서는 서울말이었다. 하루는 교실에 들어 서자 한 애가 불쑥 내 앞에 다가 서더니/“니 집에서는 서울말을 쓰제?” 하고 달려 들듯이 물었다. [...]

“서울내기 다마내기 맛 좋은 고래고기.”/합창을하기 시작했다. 어린 식견에도 그 말이 죽도록 듣기 싫었고, 집에서 서울말 쓰는 걸 반아이들이 이는게 여간 창피한 게 아니었다. 달아나듯 그곳에서 빠져나온 나는 그로부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을 피했다. 철모르고 시작한 이러한 행동이 차차 철이 들면서부터 나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부러움을 배웠고 인형으로부터 우리집의 가난함을 배웠고, 그리고 친구없는 마음의 가난을 배웠다. 사소한 이런 일들이 나를 소극적으로 만들었고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도, 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도 내 맘 속에 집어 넣고, 학교에서 배운 글짜로 끄적거리 보기 시작했다./내가 글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 시작한 것은 아마 이때부터였다고 본다./한줄 두줄 쓰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글쓰는 시간을 고요한밤으로 택할줄을 알았고, 늘쌍 밤하늘을 보며 명상의 별이란 이름을 붙여주고, 그것을 내별이라고 할줄도 알게 되었다.

양인지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글을 쓰게 되고 성장하게 되었는지 진술하기 위해서 한국전쟁의 피난지인 부산에서 ‘국민학교’ 입학 전후 시기를 보내는 가난한 소녀를 기억 속에서 불러낸다. 소녀는 아빠가 없고 인형을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친구가 없다. 그 소녀는 서울말을 쓰는 피난민과 섞여 살면서 서울말과 부산말을 이중어처럼 구사하게 된다. 국민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울 사람도 부산 사람도 아닌 이중화된 자신의 외로움을 받아들이게 되고 밤의 글쓰기를 통해서 성숙해간다.

이처럼 청소년의 문학적 글쓰기에 의해 불러나온 소녀의 성장경험은 ‘릴케 현상’의 일부로서 ‘개체화 과정’을 통해서 상연되고 있는 것이다. 인용된 양인자의 산문과 릴케의 시 〈위대한 밤〉을 함께 놓아보자. 릴케의 〈위대한 밤〉은 윤태웅이 번역한 9편의 릴케 시 중 하나이다.⁵⁷⁾ 〈위대한 밤〉에는 다른 아이들의 놀이에 끼지 못하는 소년이 등장한다. “막판에 놀이에 끼어주어도 공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다른 아이들은 그리도 쉽게 서로 어울려 별이는 어떤 놀이도 할 줄 모르는” 이 소년은 릴케의 ‘내면아이’로서 양인자의 마음을 끝냈을 것이다. “영원한 국외자, 고향을 상실한 사람으로서의” 시적 화자는 “집착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시선을 돌릴 때 비로소 자신의 내면으로 향할 수 있게 되”며 “인식의 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아나간다. 이는 자신이 “다른 어떤 놀이보다 월등히 의미 있는, 어떤 결정적인 유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그것은 바로 “성숙한 밤”과의 사귄이었다. 〈위대한 밤〉에서 “그대 고귀한

57)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저, 윤태웅 역, 「위대한 밤」, 『춘추』 3권 6호(1942. 6. 1.).

이여”라고 부르는 “밤”은 릴케의 천사와 동일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데 『말테의 수기』 이래로 릴케는 일관되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접한 사물”의 현세적 의미를 파악하고 현실의 적대감을 극복하려는 시적 의도를 전개해왔다.⁵⁸⁾ 〈위대한 밤〉의 화자는 ‘성숙한 밤’의 친구가 됨으로써 소년이 자신을 배제하는 현세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양인자는 자신의 기억 속 소녀를 통해서 동일한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당대의 한국인들은 릴케의 시가 “인간 존재와 사물의 본질이 지닌 고독의 실상이 너무나도 근원적”⁵⁹⁾이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하는 동안에도 자신들을 배제하는 사회와의 ‘거리 두기’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릴케 현상의 주체로서 먼저 고독해져야 하며 자신을 성숙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 위대한 밤에서처럼 가장 먼것과의 연관을 위해 현실로부터의 “외면wegschaun”(20행)을 결코 숨기지 않는, 합일이라는 찬란한 승리처럼 보이는 것은 실은 시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회적 환상체험 Phantasie Erlebnis에 불과하다”⁶⁰⁾는 비판은 물론 절반의 진실을 보장한다. 하지만 ‘가장 먼것과의 연관’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차단당한 이들에게서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폭력에 저항하는 ‘성숙한 밤과의 사귄’은 가장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체험이었다. 이러한 시민다움의 계기가 시민권의 정치와 대체보충 관계를 형성하면서 근대적 인간은 힘겹게 자기 자신을 문명화해왔던 것이다.

발리바르는 시민다움의 세 가지 접근법⁶¹⁾을 검토한다. 첫째, 발리바르에게 시민다움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의 ‘Sittlichkeit(인륜)’ 개념이 있다. 발리바르는 이를 ‘위로부터의 시민다움’으로 전유하는데 국가의 구성을 통해서 위로부터 야만을 일소하여 ‘소녀’를 평등한 시민으로 길러내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해력을 갖춘 독서 대중이 세계문학전집을 욕망하게 된 것은 ‘위로부터의 시민다움’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발리바르는 ‘위로부터의 시민다움’과

58) 〈위대한 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이정순, 「릴케의 서정시에 나타난 외계의 내면화」, 『릴케의 서정시 연구』(한빛 문화, 2006), 147-157쪽.

59) 김효중, 「윤태웅의 릴케시 번역 고찰」, 『번역학연구』 제6권 1호(2005, 봄호).

60) 이정순, 앞의 논문(2006), 158쪽.

61) 에티엔 발리바르 저, 서관모·최원 역, 「정치의 세 개념: 해방, 변혁, 시민인륜」, 『대중들의 공포』(도서출판b, 2007); 서관모, 앞의 논문(2011) 참조.

변별되는 ‘아래로부터의 시민다움’으로서 ‘저항의 다수자로-되기’와 ‘저항의 소수자로-되기’를 제시한다. 이 세 전략은 어느 하나로 동일화하지 않고 ‘동일화들의 이동’을 통해 서로 대체보충 관계로 존립해야 한다. 특히 ‘내적 배제’에 처한 소녀를 국가가 책임 있게 길러내지 못하는 곳에서⁶²⁾ 또한 ‘저항의 다수자로-되기’에 내재하는 아포리아인 동일성의 폭력과도 긴장을 유지하는 토포스인 ‘저항의 소수자로-되기’ 전략은 “공동의 삶의 예술/기술(art)”로서 중요해진다. 양인자의 기억 속 소녀는 밤의 고독과의 사귀음 통해 자신을 내적 배제로 내모는 현실로부터 ‘거리 두기’를 하는 능력 혹은 수단을 갖게 되며 문학적 글쓰기의 주체로서 성숙한다. 이러한 성숙에는 이데올로기의 국가장치인 ‘학교’-발리바르의 개념화에 의해서는 ‘위로부터의 시민다움’의 장소-와 ‘저항의 소수자로 되기’의 장치로서 문학적 글쓰기가 모두 요청된다. 주의할 점으로 ‘저항의 다수자로-되기’는 이러한 성숙보다 앞서서 일어나거나 차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이다. 시민다움이라는 개념의 강점은 정치의 불가능성을 ‘조건 짓고 있는 조건’들에 대한 인식이 결락된 ‘시민권의 정치’만으로는 혁명을 완수할 수 없다는 섬세한 정세 파악에 있을 것이다.

소녀는 성숙해져야 했다. 헤겔의 ‘인륜’ 개념은 ‘일차적 동일성의 해체’를 경험하는 근대적 개인에서 출발하므로 소녀는 자신이 속한 정치적 공동체와 자신이 태생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나가며 그 자신이 밤의 글쓰기를 통해 ‘거리 두기’의 장소를 건립해야 했다. 그것이 양인자에게는 밤과의 사귀이며 문학적 글쓰기였다. 독서 대중이 문학적 글쓰기와 접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저항의 소수자로-되기’의 수단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현실적인 내적 배제로부터 ‘거리 두기’를 하는 시민다움의 세 가지 계기들 사이로의 이동 능력을 길러내는 ‘성숙’의 첫걸음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숙’은 ‘내적 배제’에 처한 ‘소녀’가 정치적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의 조건’인 것이다.

릴케는 “마리아에게 드리는 소녀의 기도”에서 크리스마스 날밤에 내리는 눈처럼 고요하면서도 불길 속에 타는 소녀의 간절한 마음을 노래했다. [...] 우리는 모두 다른 누구를 위해 울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62) 백낙청이 랑시에르가 배제한 ‘치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맥락에 대해서 발리바르는 ‘시민다움의 정치’ 개념을 통해서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백낙청의 발언은 각주 14번 참조.

세모에 한번쯤 통회하는 것은 좋다.⁶³⁾

양인자와 같은 1960년대 독서 대중은 1920년대의 계몽 엘리트로서의 미적 주체와 달리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간절하게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했다. 53년 체제의 ‘위로부터의 시민다움’에 포섭되는 순간 독서 대중은 ‘릴케처럼 글쓰기/읽기’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시민다움’으로 이동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릴케 현상은 식민지조선의 문학장과 변별되는 한국 문학장의 구성에 기입되었다. 이들의 생애사가 1960년대를 넘어서 1970, 1980년대 대한민국 정치의 궤적이 되었다는 점은 추후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IV. 맺음말: “뇌옥 속에서의 질주”를 “대중들”의 양가성으로 사유하기

한국 시인들이 릴케와 맺은 영향을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사례들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다. 1930년대 중반에 릴케는 일본과 식민지조선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으며 특히 1930년대 10대와 20대 시인(문청)들에게 미친 영향은 해방 이후 ‘릴케 현상’으로 가시화되어 왔다.⁶⁴⁾ “릴케의 이름이 어떤 이방의 신의 이름처럼 외쳐”지는 점에 착안하여 김윤식은 “허다한 서구작가가 이땅을 휩쓸고 뿌리를 박았지만 릴케처럼 외쳐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오 엘리엇트여, 오 윗트먼이여, 오 보드레르여라는 외침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63) 「여적」, 《경향신문》, 1965년 12월 30일자.

64) 릴케와 한국시의 영향 관계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 김윤식, 앞의 논문(1963. 1.); 이재선, 「한국현대시와 R. M. 릴케: 그 영향을 중심으로」, 『청구대학 논문집』 8(1965) 이 있다. 릴케와 한국시의 영향관계에 대해 가장 폭넓게 연구한 저술로는 김재혁, 『릴케와 한국의 시인들』(고려대학교출판부, 2006)이 있다.

최근 릴케와 서정주의 영향 관계를 새롭게 밝힌 연구는 김익균, 『서정주의 신라정신과 남한문학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3); 김익균, 「서정주의 체험시와 ‘하우스만-릴케·니체-릴케’의 재구성: 서정주 시학을 구축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문학연구』 46(2014. 6.); 최현식, 「사실의 세기를 건너는 방법: 1940년 전후 서정주 산문과 릴케에의 대화」, 『한국문학연구』 46(2014. 6.); 김진희, 「1940년 전후 서정주의 시적 도정: 랭보와 릴케의 호명과 그 의미」, 『한국시학연구』 43(2015. 8.) 참조.

묻고 “대체 릴케에만 해당되어 보이는 이 현상은 무엇일 것인가. 문제다”라고 단언한 바 있다. 김윤식은 한국시에 나타나는 릴케 영향의 사상적인 기반에 관하여 “마르크스, 니체와 니힐주의 영향이 이땅에선 지평적인 바가 있었음이 명백할진대 이를 시로 철학한 릴케가 이땅 시인들에게 적어도 피상적이 아닌 혼의 흔들림에까지 스민 바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⁶⁵⁾

릴케와 관련해서 보자면 여전히 비교문학적 연구는 문학적 엘리트들의 지성사에 한정되어 있는 셈이다. 이 글의 의의는 독서 대중의 형성 과정 속에서 시민다움의 계기가 한국 문학장에 기입되는 양태로서 시민권의 정치와 대체보충 관계에 놓이는 시민다움의 정치를 릴케 현상으로부터 검토한 데 있을 것이다. 이 글의 결론을 대신하여 IV장에서는 시민다움의 정치와 대체보충 관계에 놓이는 시민권의 정치가 당시 처해 있던 정세를 입화의 신세대론을 중심으로 소묘해보겠다. 일제강점기 말기 시민권의 정치가 폐색되어가는 과정에서 입화가 보여준 신세대론은 대항폭력의 상상력으로 위치지을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말기의 신세대 시인을 당시 형성 중이던 독서 대중의 일부라고 보는 이 글의 입론에 따르면 입화의 신세대론은 엘리트가 상상하는 ‘저항하는 대중’에 대한 상상력의 일면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입화는 일제강점기 말기 ‘마르크스주의 이후’의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입화는 프로문학의 퇴조와 맞물려 데카당한 분위기가 번져가는 와중에 “물구나무선 형태의 리얼리스트”⁶⁶⁾로 이상을 의미화하여 박태원류의 트리비얼리즘과 선을 긋는다. 더 나아가 ‘지성이 패퇴한 직후 직면하는 지옥’을 펼쳐보였다는 점에서, 위기를 ‘주관적 의지’로 극복하고 마는 동시대인들의 ‘자기’에의 함몰보다는 보들레르(Charles Pierre Baudelaire)의 『악의 꽃』의 현대성이 더 고무적이라고 평가한다.⁶⁷⁾ 입화는 일제강점기 말기의 정세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거쳐서 마침내 신세대의 문학사적 위치를 규정한다. 입화는 시가 쓰여지기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시가 “오히려” 쓰여질 때 “현대에 대한

65) 김윤식, 앞의 논문(1963. 1.), 66쪽.

66) 입화, 「정축년문단회고(5)-사상은 신념화, 방황하는 시대정신(중)」, 《동아일보》, 1937년 12월 14일자.

67) 입화, 「현대문학의 정신적 기축」, 《조선일보》, 1938년 3월 24일자.

성실한 사고의 방향”에서 “뾰-드렐에 대한 유혹”이 생겨난다고 보았다.⁶⁸⁾ 임화는 신세대 논쟁이 본격화되기 이전 1938년에 이미 시단의 새로운 경향을 신세대의 ‘보들레르 현상’으로 드러냈던 것이다. 여기서 임화가 내놓은 ‘보들레르’라는 답안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현상’을 ‘시대’의 문제와 관련시키려는 그의 태도이다.

1938년 현재 신세대의 보들레르 수용에 주목하는 임화의 텍스트의 이면에는 카프 해산 이후 ‘전망’이 없는 기성 세대가 ‘위기의 시대’, 즉 “현대에 대한 성실한 사고”에 실패하고 있다는 경고가 수반되고 있다. “시가 자연스럽게 쓰워지기 어려운 정황”으로 “현대”를 진단하는 임화의 문제의식은 발리마르가 문제화한 극단적 폭력에 의해서 ‘정치적 주체가 출현하기 위한 ‘조건’의 조건이 파괴되는 정세와 연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임화의 ‘신세대론’이 신세대의 정신적 특질을 ‘아이디얼리즘의 결여’로 파악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임화의 문제의식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문제화하기 위해서는 해방 이후 백철의 비판적 재론을 경유할 필요가 있다. 백철은 전 세계적인 파시즘의 위협을 반영한 1930년대 유행어 “소위 위기!1936년!”이 “극동에서는 [...] 1년을 지나서 1937년 7월 7일에 화북의 일지점 노구교에서 폭발되었으니 소위 일지사변의 시작이었다”라고 시대적 맥락을 짚은 뒤⁶⁹⁾, 임화의 신세대론을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 기입한다.

임화가 조선일보 지상에 신세대론을 발표한 것이 1939년 6월과 9월이지만 그 신세대론이 배경한 시대적인 자료는 1935년에 시작되어 36, 37년의 한 개의 혼란기 과도기를 전후한 구세대의 문학세계와 그 뒤에 온 신세대의 문학세계의 차이적인 표현이었다. 이 신세대론은 유진오가 현대조선문학의 진로(1938년 동아일보) 등에서 30대의 작가는 신인작가와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 말에서 발단된 것으로서 그 론에 이어서 임화는 하나의 신세대론을 구성하였다.⁷⁰⁾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백철은 임화의 신세대론이 ‘위기의 시대’를

68) 임화, 「무인이 걸은 길-기4-방황하는 시정신」, 《동아일보》, 1938년 12월 24일자.

69) 백철, 「제4장 위기! 1936년 이후 주조상실과 문학지상주의」, 『신문학사조사』(현대편) (백양당, 1949), 254-255쪽.

70) 위의 논문, 257쪽. 1939년에 나온 임화의 신세대론은 다음을 참조. 임화, 「소설과 신세대의 성격」, 《조선일보》, 1939년 6월 29일자-7월 2일자; 임화, 「시단의 신세대-교체되는 시대 조류」, 《조선일보》, 1939년 8월 18-26일자; 임화, 「시단은 이동한다」, 《매일신보》, 1940년 12월 9-16일자.

해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임화가 말한 사실은 어데까지나 시대가 달라졌다는 사실이요 그 달라진 시대와 상응할 새로운 정신적 특질이 탄생되고 준비되었다는 말은 아니었다. 그 정신적 특징으로서 아이디얼리즘의 결여에 있다고 지적해 봤잖아 결여는 플라스가 아닌 동시에 더구나 전시대의 정신과 교질(交秩)될만한 새로운 정신은 아니다. [...] 그 현실에 살면서 시인들이 꿈을 그린 것은 두 년대가 마찬가지로이다.⁷¹⁾

백철은 임화의 신세대론이 신세대를 특권화하는 데 대해 비판적이다. 임화가 신세대의 정신적 특질로 내세운 ‘아이디얼리즘의 결여’가 위기의 시대에 나온 자연스러운 태도에 불과하며 기성 세대와 신세대가 위기를 벗어날 꿈을 꾸는 것은 다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임화가 ‘아이디얼리즘의 결여’를 신세대의 ‘새로운 정신적 특질’로 포착한 것은 이해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꿈을 그린 것은 두 년대가 마찬가지로”였지 않느냐는 백철의 항변이 상식의 편에 선 것이라면 임화는 ‘아이디얼리즘의 결여’를 자신의 세대와 명백히 변별되는 신세대의 특징으로 보면서 위기의 시대에 대응하는 상상력의 독자성을 노정하고 있다. 다음 인용을 보자.

시인들이 현대에 있어서 무력해지고 고독해지면서 화려했던 청춘의 회상가운데로 돌아갔다. [...] 우리가 회상의 정신가운데 안심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운데서 우리는 현대와의 정면교섭의 기회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 그렇다고 또한 내어다 볼 수 있는 미래의 길에 나타난다면 용이하게 시인은 그리로 향하여 질주할수있는 것이다. 우리 조선의 모더니즘은 비록 관념우에서 일망정 다행히도 그러한 길을 가지고 있던 예술이다. 감성의 활발한 도약은 현대에대한 비평의 정신으로 능히통어할 수 있었을지 모르며 또한 반대로 그러한 정신이 감성의 활발한 도약에 원천이었을지도 모른다. [...] 요컨대 그(서정주: 인용자)는 거두절미 현대의 아들이다./현대의 체험가운데로 들어가는 최초의 날로부터 바뀌말하면 정신적인 탄생의 날로부터 용기를고무할 유산의 위세도 빌지못하고, 또한 부단히 청년들을 의기소침에서 분기시키는 과제외 부름도 받지않고 땅에떠러진 많은 사람가운데 하나였다. [...] 이 추락과 심연을 아지못하는 사람은 행복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는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 그것은 마치 뇌속에서의 질주와 같은 것이다.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뛰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유포의 정신이라고 할지, 절망의도주라 할지, 좌우간 이 시인의 비밀은 우리현대서정시의 가장 의의깊은곳에 억매어 있는 것은

71) 백철, 앞의 글(1949), 260쪽.

사실이다.⁷²⁾

위의 인용에서 임화는 위기의 시대를 시인이 “무력해지고 고독해”지는 시대로 체감한다. 자신을 포함한 기성세대가 현대의 체험 속으로 들어갈 때는 미래의 ‘과제’에 기대고 있었다는 점을 인지한다. 그리고 기성세대에게는 ‘과제’가 사라진 위기의 시대에도 회상할 과거가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언급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대에게서 문제적인 것은 ‘유산’도 ‘과제’도 없이 “현대와의 정면교섭”을 한다는 점일 것이다. “현대의 아들”이 “절망의 도주” “뇌옥 속의 질주”를 하는 것은 징후적으로 보인다. 임화의 입론에 따르면 임화 세대가 미래를 향해 질주한 것과 달리 신세대는 ‘목적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최재서가 각 세대를 변별적으로 요약한 특징—“제1세대는 시조와민요의세계로안주의땅을찾고 신세대는 강물을 타고 어둠속을 뚫고나가라는데 제2세대만이 속수무책한것은무슨까닭이뇨?”⁷³⁾—에 따르면 김억, 김동환 등의 제1세대는 “유산”으로 돌아가고 임화와 같은 제2세대는 ‘과제’를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제3세대는 ‘과제도 방향도 없이’ 자신들의 심연을 가로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당대 임화, 최재서의 판단을 종합하면 전시체제가 시인들의 퇴폐⁷⁴⁾는 ‘속수무책의 방황’(2세대)과 ‘뇌옥 속에서의 질주’(3세대)로 구분된다. 백철은 이 두 세대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임화에게 ‘위기의 시대’에 ‘미래의 희망’을 갖지 못해 ‘방황’하는 지식인(2세대)과 그 ‘뇌옥 속에서 질주’하는 대중들(3세대)이라는 대조는 명료했던 것이다.

위기의 시대에 ‘뇌옥 속에서의 질주’를 주목한 임화의 언표는 지금, 여기의 상황과 접목할 때 지젝(Slavoj Žižek)이 전유한 ‘신적 폭력’의 전사(前史)로 읽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지젝은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신적 폭력’⁷⁵⁾을 대중들의 “맹목적인”, “비인간적inhuman”인

72) 임화, 「현대의 서정정신」, 『신세기』(1940. 12.), 71-73쪽.

73) 최재서, 「시단의 3세대」, 《조선일보》, 1940년 8월 5일자.

74) 1930년대 후반 퇴폐주의 운동을 니체주의와 관련하여 논의한 선구적 연구로는 신범순, 「1930년대 문학에서 퇴폐적 경향에 대한 논의: 불안사조와 니체주의의 대두」, 『한국 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제』(신구문화사, 1993) 참조.

75) 벤야민에게 신화적 폭력이 법정립적 폭력과 법보존적 폭력을 통칭하는 개념이라면, 신적 폭력은 신화적 폭력이 의존하는 법과 폭력의 결탁을 폭로하고 폐지하는 것 외에 어떤 목적도 설정하지 않는 순수한 폭력(pure violence)이다. 이문영, 「21세기 폭력의 패러다임과 폭력 비폭력의 경계」, 『평화학연구』 16권 1호(2015), 17쪽.

폭력으로 전유한다. “10여 년 전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들이 도시의 부자 동네로 몰려가 슈퍼마켓을 약탈하고 불태웠을 때 이것이 바로 ‘신적 폭력’이다.”⁷⁶⁾ 이는 대중들의 ‘대항폭력’을 조직화하는 정치적 엘리트들이 스스로 ‘미래의 희망’, 즉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위기의 시대’에 대중들(‘민중’)을 낭만화하는 태도로 읽힌다. 다시 말해서 임화가 자기 세대를 비판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뇌옥 속에서의 질주”를 읽어내는 장면은 전망을 상실한 저항적 엘리트가 도달하는 상상력의 현시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발리바르의 문제의식에 주목한 것은 총력전 시대의 임화와 오늘날의 지책이 각각 봉착한 ‘신적 폭력’이라는 상상력에 대한 개입의 측면이 있었다. ‘정치적 주체’가 ‘희망’ 혹은 ‘전망’을 잃은 ‘위기의 시대’에 대중들을 낭만화하지 않는 ‘정치는 불가능한가? 발리바르의 시민다움의 정치는 ‘저항의 다수자로-되기’에 고착되는 무능력 또는 동일성의 폭력을 넘어서 정세에 따라 ‘저항의 소수자로-되기’로 이동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종용한다. 이러한 시민다움의 전략은 대중들에 대한 낭만적 믿음에 빠지지 않고 대중들의 정치를 고민하게 한다.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의 『정치론』에서 ‘multitudo’는 ‘자율적인 집합적 주체’인 ‘다중’ [네그리(Antonio Negri)] 또는 “대중들masses”(발리바르)로 번역된다. 발리바르의 번역에서 “대중들”은 그 자체로 자율적이거나 능동적인 해방의 역량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양가적인 역량을 표현한다. 발리바르는 스피노자가 이러한 이중적인 공포야말로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했지만, 동시에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론적으로 고심했다고 파악한다.⁷⁷⁾ ‘대중들의 양가성’이란 ‘대중들의/에 대한 공포’라는 이중적 명제로 설명되는데, 폭력에 대한 ‘대중들의 공포(비겁한 비폭력)’와 이러한 폭력에 대한 ‘대항폭력이 낳은 ‘대중들에 대한 공포’를 동시에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시민다움의 정치는 정세에 따라 대중들의 일부인 바로 우리 자신이 대중들이 처한 “갈등적 상황의 예술”을 살아내도록 자신을 연마하는 일이다.

76) 슬라보예 지젝 저, 박정수 역,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그린비, 2009), 117쪽, 245쪽.

77) 에티엔 발리바르 저, 진태원 역, 『스피노자와 정치』(이제이북스, 2005), 264-266쪽 참조. ‘multitudo’에 대한 현대적 번역인 네그리의 ‘다중’과 발리바르의 ‘대중들’에 대한 비교는 진태원, 「대중의 정치란 무엇인가?」, 『철학논집』 19집(2009), 183-184쪽.

입화는 자기 세대가 전망을 잃어가던 '위기의 시대'에도 저항의 가능성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입화가 상상한 '뇌옥 속에서의 질주'는 대중의 낭만화라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일제강점기 말기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립 과정에 상존하는 시민권의 정치의 가능성이기도 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입화적'인 상상력의 지평을 가로지르고 있는 '릴케 현상' 역시 대중들과 그 일부인 새로운 세대의 시민다움의 계기들로 엄존했었다. 시민다움의 계기는 폭력과 대항폭력 혹은 비폭력으로 기억되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이미, 항상' 심어져 있었다. 우리 현대(문학)사에서 독서 대중은 학교와 예술을 매개로 시민다움의 정치를 수행해왔고 이것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이 가능하게 한 '조건'이 되어주었다. 한국 사회의 '릴케 현상'은 대중들이 문학적 글쓰기와 접속하는 과정에서 발현된 시민다움의 정치의 예시로서 우리의 사유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시민권의 정치가 폐색되는 정세에서 입화가 보여준 대항폭력의 낭만화된 상상력과 독서 대중의 시민다움의 계기를 마주 세워 계몽 주체와 미적 주체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문학정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적 근대성의 주체화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청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고마고메 다케시 저, 오성철·이명실·권경희 역, 『식민지 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조선·대만·만주·중국 점령지에서의 식민지 교육』. 역사비평사, 2008,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2012.
- 김재혁, 『릴케와 한국의 시인들』.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 김춘수, 『김춘수시론전집 1』. 현대문학, 2004.
- 김춘식, 『미적 근대성과 동인지 문학』. 소명출판, 2003.
- 김행숙, 『문학이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 2005.
- 미셸 푸코 저, 이승철 역, 『푸코의 맑스-뒤틀치오 뜨롬바도리와의 대담』. 갈무리, 2004.
-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向文社, 1963.
- 서정주, 『서정주전집』 2권. 일지사, 1972.
- 서중석,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2008.
-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 슬라보예 지젝 저, 박정수 역,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그린비, 2009.
- 심세광, 『어떻게 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을 것인가』. 길밖의길, 2015.
- 에티엔 발리바르 저, 윤소영 역, 『마르크스의 철학, 마르크스의 정치』. 문화과학사, 1995.
- 에티엔 발리바르 저, 서관모·최원 역, 『대중들의 공포』. 도서출판b, 2007.
- _____, 진태원 역, 『스피노자와 정치』, 이제이북스, 2005.
- _____, 진태원 역, 『우리, 유럽의 시민들?』, 후마니타스, 2010.
- _____, 진태원 역, 『정치체에 대한 권리』. 후마니타스, 2011.
- _____, 진태원 역, 『폭력과 시민다움: 반폭력의 정치를 위하여』, 난장, 2012.
- 이두영, 『현대한국출판사』. 문예출판사, 2015.
- 조영복, 『1920년대 초기 시의 이념과 미학』. 소명출판, 2004.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 한나 아렌트 저, 박미애·이진우 역, 『전체주의의 기원』 2권. 한길사, 2006.

2. 논문

- 고영석, 「한국 독어독문학의 어제와 오늘」. 차봉희 엮음,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100년 1』, 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 김성호, 「문학의 정치와 정치적 보편성」. 『크리티카』 4호, 2010.
- 김수영, 「독자의 불신임」(1960. 8.). 『김수영전집 2』, 민음사, 1981.

- 김수용, 「Ⅲ. 계몽의 계몽: 계몽위기의 극복 시도」. 『독일계몽주의』,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 김윤식, 「한국에 있어서의 릴케: 비교문학적 시도」. 『현대문학』, 1963. 1.
- 김익균, 『서정주의 신라정신과 남한문학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_____, 「서정주의 체험시와 '하우스만-릴케·니체-릴케'의 재구성: 서정주 시학을 구축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문학연구』 46, 2014. 6.
- 김주연, 「이야기를 가진 시」. 『나의 칼은 나의 작품』, 민음사, 1975.
- 김진희, 「1940년 전후 서정주의 시적 도정: 랭보와 릴케의 호명과 그 의미」. 『한국시학연구』 43, 2015. 8.
- 김혜련, 『식민지기 중등학교 국어과 교육 연구: 제2차 조선교육령기(1922-1938)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효중, 「윤태웅의 릴케시 번역 고찰」. 『번역학연구』 제6권 1호, 2005, 봄호.
- 도미야마 이치로 저, 송석원 외 역, 「서문을 대신하여: 겹쟁이들」. 『폭력의 예감』, 그린비, 2009.
-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저, 윤태웅 역, 「위대한 밤」. 『춘추』 3권 6호, 1942. 6. 1.
- 루이 알튀세르 저, 이종영 역, 「'피콜로', 베르톨라치 브레히트(유물론적 언급에 대한 노트)」. 『맑스를 위하여』, 백의, 1997.
- 문현미, 「한국 근대시에서 독일시 접촉과 수용」. 한국문화회 엮음, 『해외문화 접촉과 한국문학』, 세종출판사, 2003.
- 민경찬, 「독일민요 '소나무'가 영국 일본 거쳐 한반도로 유입 변형」. 『미디어오늘』, 2004. 3. 1.
- 박숙자, 「명작의 조건: 번역, 출판, 전집」. 『속물교양의 탄생』, 푸른역사, 2012.
- 박현수, 「1920년대 초기 문학의 재인식: 기존 논의 검토」. 『상허학보』, 상허학회, 2000. 8.
- 백낙청, 「현대시와 근대성, 그리고 대중의 삶」. 『창작과비평』, 2009, 겨울호.
- _____, 「우리시대 한국문학의 활력과 빈곤」. 『창작과비평』, 2010, 겨울호.
- 백철, 「제4장 위기! 1936년이후 주조상실과 문학지상주의」. 『신문학사조사』(현대편), 백양당, 1949.
- 서관모, 「알튀세르에게서 발리바르에게로: 이데올로기의 문제 설정과 정치의 개조」. 진태원 엮음, 『알튀세르 효과』, 그린비, 2011.
- _____, 「시민윤리성의 정치에 대하여」. 『사회과학연구』 30권 1호, 2013.
- 신범순, 「1930년대 문학에서 퇴폐적 경향에 대한 논의: 불안사조와 니체주의의 대두」. 『한국 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제』, 신구문화사, 1993.
- 안문영, 「한국 독문학계의 릴케 수용」. 차봉희 엮음,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100년 2』, 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 안상원, 「독일 시문학의 수용」.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100년 1』, 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 에티엔 발리바르 저, 서관모·최원 역, 「정치의 세 개념: 해방, 변혁, 시빌리테」 (1995). 『대중들의 공포』, 도서출판 b, 2007.
- _____, 진태원 역, 「스피노자에서 개체성과 관계체성」. 『스피노자와 정치』, 이제이북스, 2005.
- _____, 진태원 역, 「정치의 재발명: 시민권과 시민다움」. 『정치체에 대한 권리』, 후마니타스, 2011.
- 오문석, 「1920년대 초반 '동인지'에 나타난 예술이론 연구」. 『상허학보』, 상허학회, 2000. 8.
- 이문영, 「21세기 폭력의 패러다임과 폭력 비폭력의 경계」. 『평화학연구』 16권 1호, 2015.
- 이용희, 「1960-70년대 베스트셀러 현상과 대학생의 독서문화: 베스트셀러 제도의 형성과정과 1970년대 초중반의 독서 경향」. 『한국학연구』 4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5.
- 이재선, 「한국현대시와 R. M. 릴케: 그 영향을 중심으로」. 『청구대학 논문집』 8, 1965.
- 이정순, 「릴케의 서정시에 나타난 외계의 내면화」. 『릴케의 서정시 연구』, 한빛 문화, 2006.
- 임화, 「현대의 서정정신」. 『신세기』, 1940. 12.
- 전광진, 「『두이노의 비가』에 나타난 천사상」. 『릴케』, 문학과지성사, 1981.
- 정경량, 「한국에서의 독일시 연구」. 『한국독어독문학 50년』, 알음, 2008.
- 조영복, 「동인지 시대의 담론과 '내면예술'의 계단」. 『1920년대 초기 시의 이념과 미학』, 소명출판, 2004.
- 진태원, 「대중의 정치란 무엇인가?」. 『철학논집』 19집, 2009.
- _____, 「옮긴이 해제」. 『우리, 유럽의 시민들?』. 후마니타스, 2010.
- _____, 「정치적 주체화란 무엇인가? 푸코 랑시에르 발리바르」. 『진보평론』 63호, 2015.
- 차혜영, 「1920년대 동인지 문학 운동과 미 이데올로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9.
- 천정환, 「일제 말기의 독서문화와 근대적 대중독자의 재구성」. 『학문장과 동아시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 최현식, 「사실의 세기를 건너는 방법: 1940년 전후 서정주 산문과 릴케에의 대화」. 『한국문학연구』 46, 2014. 6.
- 피에르 마슈레 저, 이성훈 역, 「이데올로기 형식으로서의 문학」. 『유물론, 반영론, 리얼리즘』, 백의, 1995.
- 황종연, 「플로베르, 염상섭, 문학 정치: 한국 근대문학에 대한 랑시에르적 사유의

시도. 『한국현대문학연구』, 2016.

3. 신문

계용묵, 「추풍유상을 찬한다(수필 심사소감): 전국남녀대학생작품 심사결과발표」.

《경향신문》, 1958년 4월 7일자.

김우중, 「괴산의 순수 문학-새로운 문학을 위한 문단에 보내는 각서」. 《동아일보》,

1963년 8월 7일자.

신동엽, 「시와 사상성-기교비평에의 충언」. 《동아일보》, 1963년 12월 11일자.

심용남(한국펜팔 대표), 「펜팔활동의 목적과 그의 문화교류」. 《경향신문》, 1960년

6월 20일자.

양인자, 「아버지 그리운 마음으로」. 《경향신문》, 1961년 12월 9일자.

임화, 「정축년문단회고(5)-사상은 신념화, 방황하는 시대정신(중)」. 《동아일보》,

1937년 12월 14일자.

___, 「현대문학의 정신적 기축」. 《조선일보》, 1938년 3월 24일자.

___, 「무인이 걸어온 길-기4-방황하는 시정신」. 《동아일보》, 1938년 12월 24일자.

___, 「소설과 신세대의 성격」. 《조선일보》, 1939년 6월 29-7월 2일자.

___, 「시단의 신세대-교체되는 시대 조류」. 《조선일보》, 1939년 8월 18-26일자.

___, 「시단은 이동한다」. 《매일신보》, 1940년 12월 9-16일자.

최재서, 「시단의 3세대」. 《조선일보》, 1940년 8월 5일자.

국 문 초 록

이 글은 대중들의 문해력이 상승되어가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시작되어 대한민국 건설기에 본격화된 릴케 현상에 시민다움 개념을 적용한 시론(試論)이다. 이를 위해서 1960년대의 여고생 양인자가 ‘릴케처럼 쓰기’를 수행하는 텍스트와 일제강점기 말기 신세대의 ‘정신적 특질’을 ‘아이디얼리즘의 결여’로 파악한 임화의 언표를 분석하였다.

릴케 현상은 한국 사회 독서 대중의 문학적 글쓰기가 가시화되는 과정을 상연하고 있었다. 근대의 극단적 폭력과 극단적 폭력의 한 예시인 내적 배제는 ‘대중들의/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대중들의 양가성을 반(反)폭력의 정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민다움의 계기가 필요해진다. 대중들의 문학적 글쓰기와 연루된 릴케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시민다움의 정치의 장소(topos)를 건립하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한국 문학장에는 식민지 조선의 문학장과 변별되는 독서 대중의 시민다움의 계기가 기입된다.

투고일 2017. 6. 18.

심사일 2017. 7. 4.

게재 확정일 2017. 8. 24.

주제어(keyword) 독서 대중(public readership), 시민다움(civillite), 릴케 현상(Rilke phenomenon), 문학과 정치(literature and politics), 미적 자율성(aesthetic autonomy), 문해력(literacy), 문학적 글쓰기(literature-oriented writings), 극단적 폭력(extreme violence), 내적 배제(inner exclusion), 대중들의 양가성(ambivalence of masses), 관계체성(individualite), 양인자(Yang In Ja), 임화(Lim Hwa)